

# '4차례 우승' SK 와이번스, 역사 속으로



2018 KBO 한국시리즈 우승.

'왕조'를 구축했던 SK 와이번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신세계 그룹 이마트는 SK텔레콤이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SK 인수를 26일 확정했다. 신세계와 SK텔레콤은 이날 야구단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했다.

SK는 2000년 3월 프로야구에 처음

등장했다. 그해 1월 재정난을 겪던 쌍방울 레이더스의 선수 보유권을 넘겨 받아 팀을 창단했다.

인천을 연고지로 하는 SK는 도원구장을 사용하다 2002년에는 최신식 시설을 자랑하는 문학구장으로 이사했다. 현재 구장의 이름은 인천 SK행복드림구장이다.

## 신세계 그룹 이마트, 인수 확정...매각 MOU체결 2000년 3월 첫 등장 후 2007년 '왕조시대' 구축

신생팀 SK는 양대리그 체제였던 2000년 매직리그 4위로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했다. 44승3무86패 승률 0.338에 그치며 8개 구단을 모두 합쳐서도 최하위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점차 성장하기 시작했다. 2001년 7위, 2002년 6위로 한 계단씩 오르더니 2003년 한국시리즈 준우승에 오르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리고 2007년 김성근 감독이 사령탑으로 부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왕조'를 구축했다.

2007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거머쥔 SK는 2012년까지 6년 연속 한국시리즈에 진출하며 '강팀'으로 군림했다. 이 중 2008년, 2010년에도 우승 반지를 차지했다.

불편 야구와 보직 파괴 등 경기 운용에 다양한 시도를 하며 '이기는 팀'의 이미지를 쌓았다.

이후 다소 주춤했던 SK는 2017년 트레이 힐만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다시 힘을 내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창단 후 네 번째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성공했다.

지난해는 9위에 그치며 고전했지만, 2021시즌을 앞두고 대표이사과 단장, 감독을 모두 교체하면서 쇄신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성적뿐 아니라 팬서비스에서도 돋보였다.

2007년부터는 스포테인먼트(스포츠+엔터테인먼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야구계에 심는데 앞장섰다. 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팬들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SK의 스토리는 여기서 멈출 전망이다. 21년 간 인천팬들의 희로애락을 책임졌던 SK도 이제는 추억이 된다.

## 40년 KBO리그 역사 사라진 구단은?

### 삼미 슈퍼스타즈 최초...현대·쌍방울·MBC청룡·해태 등

'SK 와이번스'란 구단명이 창단 후 2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SK텔레콤과 신세계그룹은 26일 SK 와이번스 야구단을 신세계그룹이 인수하는데 합의하고,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SK텔레콤이 보유하고 있는 SK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며 연구지는 인천으로 유지한다.

이마트의 갑작스런 행보는 KBO, 10개 구단, 야구팬들을 모두 놀라게 만

들었다. 20년간 수 많은 명승부를 연출한 SK였기에 충격은 더욱 컸다. 이들은 한국시리즈 4차례 우승이라는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올해로 40시즌을 맞이하는 KBO리그 역사에서 사라진 구단은 많다.

KBO리그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구단은 삼미 슈퍼스타즈다. 삼미는 인천을 연고지로 활약했고, 성적이 좋지 않아 홈팬들에게 비난을 받기 일쑤였다.

우여곡절 끝에 삼미는 1985년 정보식품에 인수되면서 구단명이 정보핀토스로 바뀌게 됐다. 이후 두 차례 더

주인이 바뀌었다. 1987년 태평양화학이 정보를 인수해 태평양 돌핀스로 탈바꿈 했고, 1995년 현대그룹이 태평양 구단을 인수해 현대 유니콘스가 탄생하게 됐다.

현대는 2008년 전격 해체를 선언했다. 당시 KBO는 탄탄한 전력을 가진 현대의 해체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더이상 야구단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기업의 의지를 꺾지 못했다.

현대의 해체 후 곧바로 히어로즈가 창단을 했다. 당시 히어로즈는 인수가 아닌 재창단을 선택했다. 히어로즈는 연구지를 서울로 선택했다. 히어로즈는 네이밍 스폰서십을 도입해 우리담배, 넥센타이어, 키움증권의 지원을 받아 현재까지 구단을 운영하고 있다.

쌍방울 레이더스 역시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1990년 창단한 쌍방울은 1999시즌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2000년 SK 와이번스가 창단을 했지만, 이때도 인수가 아닌 재창단이었다.

쌍방울은 전복을 연고지로 했고, SK는 연고지로 인천을 택했다. 이후 전북 연고지 구단은 나오지 않고 있다.

프로야구 원년 구단인 MBC 청룡은 LG그룹이 인수해 1990년 LG 트윈스로 이름을 바꿨고, KIA 타이거즈로 해태 타이거즈를 인수해 같은 연고지(광주)에서 2001년부터 명맥을 잇고 있다.

때문에 청룡과 해태 선수들의 기록은 단절 되지 않았다. KIA의 한국시리즈 우승 횟수를 논할 때 해태의 기록도 포함되는 것이 그 이유다.

## KT 주권 연봉조정 '성사' 선수협 "유의미한 진일보"

### 역대 2번째 연봉 조정 승리 KT, 조정위 인상안 '수용'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연봉조정위원회의 결과를 환영했다.

선수협은 "지난 25일 KBO 연봉조정위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선수의 권리를 존중하고 결과를 인정한 KT 위주 구단에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권(KT)은 2021시즌 연봉으로 2억5000만원을 요구했지만, KT 구단은 2억2000만원을 제시했다.

KBO는 25일 연봉조정위를 열어 주권의 연봉을 선수 제시액인 2억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앞서 20차례 열린 연봉조정위에서 선수 요구액이 받아들여진 건 2002년 LG 트윈스 소속이던 류지현 현 LG 감독이 유일했다. 주권은 19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 연봉조정 승리라는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다.

선수협은 "이번 연봉 조정위원회

의 결정이 단지 선수 한 명의 연봉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닌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도 확립을 위한 큰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 KBO가 야구발전과 공정한 제도 확립에 역력히 고민하고 있는 만큼 선수협도 KBO와 꾸준히 대화하며 같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준 연봉 조정위원회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유의미한 진일보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선수와



구단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 K리그 겨울 이적시장, 코로나 여파로 '트레이드' 대세

### 구단 재정 악화로 '검증된 외인·베테랑 복귀'도 특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시즌을 앞둔 프로 축구 겨울 이적시장에서 '트레이드'가 선수 영입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6일 이번 이적시장의 대세는 트레이드라고 밝혔다. 연맹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구단들이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이적료 지불보다 트레이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3각 트레이드'도 이뤄졌다. 성남의 김동현이 강원FC로, 강원 이현식이 대전하나시티즌으로, 대전의 박용지가 성남으로 이적했다.

코로나19 여파는 외국인 선수 영입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해외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선수를 직접 보고 스카우트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면서 이미 K리그에서 실력이 검증된 선수들이 연쇄 이동했다.

K리그1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는 지난 시즌 포항 스틸러스에서 득점 2위(19골)에 오른 일류첸코(독일)를 영입했고, 강원은 지난 시즌 수원 FC 승적 주역인 마사(일본)와 광주FC의 수비수 아슬마토프(우즈베키스탄)를 잡았다.

FC서울은 지난 시즌 포항에서 일류첸코와 함께 맹활약한 팔로세비치(세르비아)를 뽑았다.

성남은 2017~2018년 울산에서 '리차드'란 이름을 뽐내며 수비수 빈트비클러(오스트리아)를 영입했고, 인천은 지난 시즌 임대로 승격을 도운 아길라르를 재영입했다.

그밖에 수원FC는 전북에서 무릎로, 경남FC는 광주와 전남 드래곤즈에서 각각 윌리안과 에르난데스를 데려왔다.

베테랑의 친정팀 복귀도 대세 중 하나다.

이근호(대구), 신진호, 신광훈(이상 포항), 이호(울산), 이한샘(광주) 등 K리그 베테랑들이 친정팀으로 복귀해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2006~2007시즌 대구 소속으로 59경기 23골(9도움)로 맹활약한 이근호는 13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왔다.

2003년 울산에서 프로 데뷔해 2005년 울산의 K리그 우승과 2012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도운 미드필더 이호는 7년 만의 복귀다.



## "팬 덕분에 가능했던 역사, 소중한 추억" "신세계, 야구 열정과 의지 높다는 것 확인해"

21년 영욕의 세월을 뒤로 하고 야구계와 인연을 떠나게 SK텔레콤과 SK 와이번스가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신세계그룹은 26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마트가 SK텔레콤이 보유한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 가격은 토지와 건물 포함 1352억8000만원이다. 보통주 1000억원, 토지 및 건물 352억8000만원이다.

SK 와이번스의 매각 소식은 지난 25일 알려졌다. SK 와이번스 구단 수뇌부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마트가 SK텔레콤이 보유한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 가격은 토지와 건물 포함 1352억8000만원이다. 보통주 1000억원, 토지 및 건물 352억8000만원이다.

SK 와이번스의 매각 소식은 지난 25일 알려졌다. SK 와이번스 구단 수뇌부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마트가 SK텔레콤이 보유한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 가격은 토지와 건물 포함 1352억8000만원이다. 보통주 1000억원, 토지 및 건물 352억8000만원이다.

SK 와이번스의 매각 소식은 지난 25일 알려졌다. SK 와이번스 구단 수뇌부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마트가 SK텔레콤이 보유한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 가격은 토지와 건물 포함 1352억8000만원이다. 보통주 1000억원, 토지 및 건물 352억8000만원이다.

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잘 할 때나 못 할 때나 항상 애정을 갖고 함께 해 주신 팬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했던 순간들"이라고 적었다.

이어 "팬 여러분의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했던 매 순간을 이제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한국 프로야구 발전과 대한민국 스포츠 도약을 위해 새로운 도전의 길을 나서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또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SK 와이번스 인수 제안을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세계 그룹의 야구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고객들의 일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통기업의 장점이 프로야구와 만나면 팬 여러분께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SK 와이번스의 매각 소식은 지난 25일 알려졌다. SK 와이번스 구단 수뇌부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마트가 SK텔레콤이 보유한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 가격은 토지와 건물 포함 1352억8000만원이다. 보통주 1000억원, 토지 및 건물 352억8000만원이다.

SK 와이번스의 매각 소식은 지난 25일 알려졌다. SK 와이번스 구단 수뇌부들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전격적이었다.

신세계그룹은 26일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를 인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마트가 SK텔레콤이 보유한 SK 와이번스 지분 100%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인수 가격은 토지와 건물 포함 1352억8000만원이다. 보통주 1000억원, 토지 및 건물 352억8000만원이다.

## "역시 김연경"

### 올스타 투표 남녀 전체 1위 국내 복귀 후 1라운드 MVP

11년 만에 돌아온 김연경(흥국생명)이 올스타 투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26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김연경은 15일부터 25일까지 KOVO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 도드람 2020~2021 V-리그 올스타 팬투표에서 8만2115표로 남녀부 최다 득표자로 등극했다.

복귀와 동시에 경기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 김연경은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며 최고의 별로 우뚝 섰다. 김연경은 국내 무대 복귀 후 1라운드 MVP 수상을 비롯해 공격 종합, 서브 등 개인 기록 선두를 달리는 중이다.

전체 2위는 남자부 신영석(한국전력)으로 나타났다. 신영석은 7만5842표를 획득했다.

여자부 K-스타 양효진(현대건설)은 통산 12번째 올스타로 뽑혔다. 황연주(14회), 여오현, 김해란(이상 13회)에



이어 역대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남자부 V-스타 한선수(대한항공)는 10번째 올스타가 됐다.

남자부 K-스타의 이승원(삼성화재)은 2014~2015시즌 데뷔 이후 처음 올스타의 영예를 안았다. 임동혁(대한항공), 박경민(현대캐피탈) 등 영건들도 첫 선수를 받았다.

올스타는 남녀부 K-스타, V-스타 각각 7명씩 총 28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기가 열린지 않는다. 선정된 선수들에게는 특별 제작한 올스타 트로피가 수여된다.

뉴스

## 손흥민, 케인 제치고 토트넘 전반기 평점 1위

'손세이셔널' 손흥민(29)이 영국 BBC가 선정한 2020~2021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전반기 팀별 최고 평점에서 토트넘 홋스퍼 1위에 올랐다.

BBC는 25일(현지시간) 이번 시즌 EPL 구단별 경기당 평균 평점이 가장 높은 선수를 소개했다.

손흥민은 평균 평점 6.48점으로 토트넘에서 가장 꾸준한 활약을 펼친 선수로 뽑혔다.

BBC는 "손흥민이 선수 평점에서 해리 케인을 앞섰다. 이번 시즌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정규리그에서 12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케인은 이번 시즌 리그 12골 11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는 손흥민보다 많지만, 팀 전체에 미친 영향력은 손흥민이 앞선 것으로 평가됐다.

손흥민 다음으로 케인이 6.36점, 지오바니 로셀소가 5.88점이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선 베테랑 골잡이 에딘손 카비니가 6.38점으로 브루노 페르난데스(6.21점)보다 높았다.

뉴스